경업 안한다더니… 오렌지 판 MBK, 푸르덴셜 입질

〈경쟁업종〉

매각 본입찰 3월19일 확정

KB금융·MBK파트너스 '2파전'
MBK, 오렌지라이프 매각 전적
희망퇴직 등 5년만에 차익 2조
MBK에 매각땐 '고용안정 우려'
푸르덴셜 내부선 KB매각 선호

푸르덴셜생명 사옥 전경. /푸르덴셜생명

푸르덴셜생명 인수전이 본입찰을 앞두고 KB금융지주와 MBK파트너스 '2파전'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특히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 매각 경험이 있는 MBK파트너스가 이번 푸르덴셜생명 매각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인수전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비은행 부분을 강화해야 하는 KB금융으로써 푸르덴셜생명이 매력적인 매물이다. KB금융의 걸림돌은 가격이지만 MBK파트너스가 오렌지라이프를 매각할 당시 체결한 경업금지 조항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KB금융이 우위에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푸르덴셜생명 매각의 본입찰은 오는 3월 19일로 정해졌다. 인수전은 KB금융과 MBK파트너스의 양자 대결 구도로 굳혀지는 분위기다.

앞서 푸르덴셜생명 매각을 위한 예비입찰에서 KB금융을 비롯해 국내 상위 사모펀드(PEF)인 MBK파트너스, 한앤컴퍼니, IMM 프라이빗에쿼티(PE) 등 총 4곳이 참여했다.

오렌지라이프 매각으로 2조원의 차익을 남긴 MBK파트너스가 매각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월한 자금조달 능력으로 제2의 오렌지라이프 매각 성공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MBK파트너스는 사모펀드라는 점이 약점이다. 통상적으로 사모펀드는 구조조정, 경영합리화 등 체질 개선 과정을 거쳐 재매각을 통해 차익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먹튀(먹고 튀는)' 이미지가 강하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13년 고용유지를 약속하고 오렌지라이프를 인수한 뒤 1년도 안 돼 임원 절반을 해고하고 전체 인원의 20%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제안했다. 이후 회사를 상장시키고 2018년 신한금융에 팔아 5년 만에 2조원이 넘는 차익을 남긴 바 있다.

신한금융지주와 오렌지라이프 매각 당시 체결한 경업금지 조항도 걸림돌이다. 2년간 경업금지(경쟁업종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항) 약정을 맺은 것. 2년간 오렌지라이프와 동종업종인 보험사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없다는 얘기다.

경업금지 조항에 따르면 MBK파트너스가 보험업에 진출할 수 있는 시기는 올해 9월부터다. MBK파트너스가 푸르덴셜생명을 인수하고 싶어도 인수대금을 내고 거래를 종결하는 시기가 경업금지 기간이 끝난 9월 이후여야 한다. 푸르덴셜생명 인수에 성공해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롯데지주의 롯데카드 매각 사례를 보면 우선협상 단계에서 바뀔 수도 있다. 롯데지주는 롯데카드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앤컴퍼니로 정했었다. 그러나 한상원 대표가 검찰수사를 받으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차질이 예상되자 우선협상대상자를 MBK파트너스로 교체했다.

결국 롯데지주는 지난 5월 이사회를 열고 MBK파트너스-우리은행 컨소시엄에 롯데카드 지분을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다. 금융당국이 깐깐하게 심사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푸르덴셜생명이 MBK파트너스에 매각될 경우 고용안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푸르덴셜생명 내부도 KB금융으로의 매각을 원하는 분위기다.

오렌지라이프 사례를 보면 고용안정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통상 구조조정 등을 통해 회사의 가치를 높여 되파는 사모펀드의 특성을 고려하면 푸르덴셜생명은 팔려도 다시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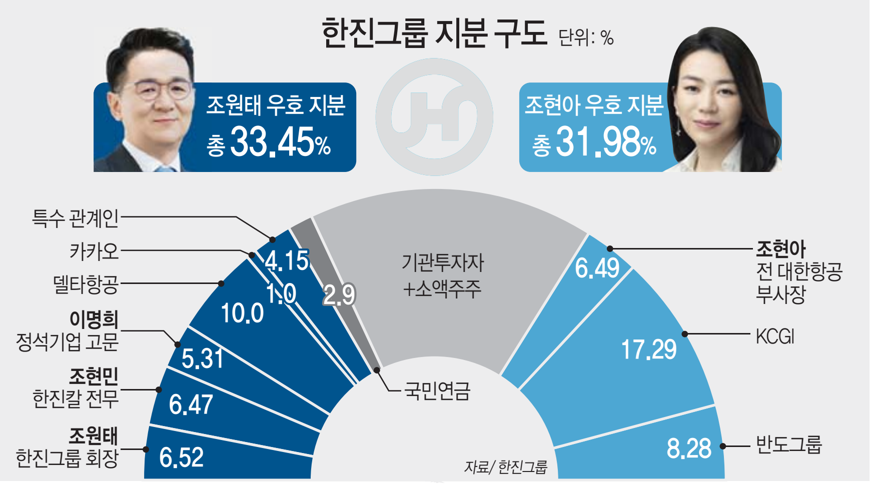
보험업계 관계자는 "푸르덴셜생명 매각에 있어 KB금융과 MBK파트너스 중 누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KB금융이 가격이라는 변수를 제외하고는 안정적인 인수자로서 우위에 있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주주연합, 김신배·배경태·김치훈 등 사내이사 추천

反 조원태 연합, 주주제안 공개

사내이사·사외이사 총 8명 인사
'캐스팅보트' 주주 권익강화 위해
정관에 '전자투표' 도입 등 명시



'반 조원태 연합'의 주주제안이 예상보다 하루 앞서 한진칼에 제출된 가운데 이제 소액주주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한진그룹 정상화를 위한 주주연합은 오는 3월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제안을 내놨다.

주주연합은 "본 주주제안을 준비함에 있어 오직 한진그룹의 정상화라는 확고하고 단일한 목적을 갖고, 최대한의 진정성을 담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주주연합이 내놓은 주주제안에는 ▲전문경영인·외부전문가로 이사진 구성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해 사외이사 중 선임 ▲정관 변경안에 전자투표제 신설 제시 등이 있다.

무엇보다 초미의 관심사로 꼽혔던 사내·외 이사 추천 후보도 이날 함께 공개됐다. 주주연합은 사내이사 및 기타 비상무이사와 사외이사에 각 4명의 인사를 올렸다. 먼저 사내이사 및 기타 비상무이사에는 ▲김신배 전 SK그룹 부회장 ▲배경태 전 삼성전자 중국총괄 부사장 ▲김치훈 전 대한항공 상무 ▲함철호 전 티웨이항공 대표이사(기타 비상무이사 후보) 등이 이름을 올렸다. 주주연합은 이들 후보가 전문경영인이라고 강조했다.

사외이사 후보로는 ▲서윤석 이화여대 교수 ▲여은정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교수 ▲이형석 수원대 공과대학 교수 ▲구본주 법무법인 사람과사람 변호사 등 4명을 제안했다.

주주연합은 "능력있는 전문경영인들이 머리를 맞대 한진칼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자 한다"며 "새로운 전문경영인들의 경영을 통해 한진그룹이 현재의 위기를 벗어나 더욱 성장·발전할 수 있는 길로 들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본 주주제안의 목적은 크게 이사회 중심 경영체제의 확립과 주주권익 보호 및 주주가치 제고 두 가지다. 먼저 주주연합은 주주의 권익 강화를 위해 정관에 전자투표의 도입을 명시하고,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선임시 개별투표 방식을 채택해 주주들의 의사가 보다 정확히 반영되도록 했다. 또한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한 보상위원회의 의무적 설치 규정을 정관에 둬, 주주들이 경영진의 보수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하고자 했다.

아울러 대주주 중심의 경영에서 벗어나 이사회 중심의 경영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관 변경 안건도 제시했다. 주주연합은 청렴성 요건을 반영한 이사의 자격 조항을 정관상 신설하고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해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 중 선임하도록 했다. 또한 감사위원회·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내부거래위원회·보상위원회·거버넌스위원회 등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를 의무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오는 3월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최대 지분 확보의 관건인 '주주제안'이 양측 모두 공개됨에 따라, 이를 둘러싼 신경전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의 한진칼 지분이 단 2.9%라고 알려진 상황에서 소액주주의 선택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 '3자 동맹'이 보유한 지분은 단 1.47%포인트 차이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증선위, 금감원서 올린 DLF 과태료 줄였다

조정결과 수용, 배상 결정 등 고려
우리 190억, 하나 160억 수준 부과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내린 과태료 규모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에서 줄어들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각각 190억원, 160억원 수준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두 은행에 대해 각각 230억원, 260억원의 과태료 부과 제재를 결정했다.

과태료 부과 안건은 이번 증선위와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금융위는 다음 달 이번 과태료 부과 안건과 함께 두 은행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 안건도 함께 심의할 예정이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한 중징계는 금감원장 결재로 이미 확정됐다. 이들은 임원 연임과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인 '문책 경고' 제재를 받았다.

과태료 부과액이 감경된 것은 은행들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를 수용하고 자율배상을 결정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지난달 15일 회의를 열고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정에 대해 자율조정 배상을 결정한 후, 영업점을 통해 배상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

파낙스이텍

2차전지 전해액 공장 헝가리에 짓는다

동화기업 계열사인 파낙스이텍이 2차전지 전해액 제조공장을 헝가리에 짓는다.

13일 동화기업에 따르면 2차전지 전해액 제조사 파나스이텍이 헝가레 부다페스트 인근 소쉬쿠트에 연간 2만톤 생산규모의 2차전지 전해액 제조공장을 건설한다.

동화기업은 지난해 8월 파낙스이텍을 인수, 계열사로 추가한 바 있다.

현재 헝가리에는 삼성SDI를 비롯해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이 들어서 있다.

두 회사 공장은 유럽 전기차 업체에 공급하는 배터리 생산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파낙스이텍의 헝가리 공장도 이들 공장 인근에 들어서기 때문에 이들 2차전지 완제품 제조사들에게 소재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 2차전지 시장은 전기차,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인해 시장규모가 현재 연간 30조원 규모에서 2025년엔 120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흐름 속에 최근 유럽 전기차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 파낙스이텍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설명이다.

동화기업 관계자는 "계열사인 파낙스이텍은 2차전지 4대 핵심 소재 중 하나인 전해액을 생산하는 회사로 전해액 글로벌 시장 점유율 10위권 이내에 든다"면서 "현재 한국(1만 톤)과 말레이시아(1만 톤), 중국(1만3000톤)에서 각각 전해액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번에 헝가리 공장까지 더해지면 총 5만3000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승호 기자 bada@